

광주·전남 지자체 '친환경 마케팅' 확산

'녹색교통'으로 고유가 넘는다

초(超) 고유가시대를 맞아 광주·전남 지자체들이 기후변화대응 시범도시 지정 등을 통한 이산화탄소 배출·에너지 사용 감축과 천연가스 차량 및 자전거 등 녹색교통 보급 등에 적극 나서고 있다. 도시 자체를 에너지를 적게 쓰는 친환경 도시로 바꾸기 위한 '친환경 마케팅'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최적의 지리적 여건을 활용, 태양광·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을 통해 에너지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꾀하는 지자체도 늘고 있다.

**천연가스 버스 늘리고
자전거 전용차로 확대
이산화탄소 감축 선언**

부과 2015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발생량 기준 10%를 감축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기후변화 대응 시범도시 협약'을 체결하고 '탄소은행 전용카드' 제도를 도입했다. 각 가정에서 전력과 가스 사용량을 자발적으로 줄이면 감축한 이산화탄소량을 포인트로 환산, 전용카드에 적립해 물건 구입 등에 사용토록 한 이 카드의 접수 보름만에 3천972가구가 접수했다.

◇녹색교통으로 고유가 극복=순천시 시는 초고유가 시대를 맞아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2012년까지 시내 주요 8개 도로 34km 구간의 차로를 줄여 자전거 이용 공간을 확보하고 도로 주변 곳곳에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하기로 했다. 우선 올해 40여억원을 들여 남산로와 팔마로, 충효로 등 3개 도로에 자전거 전용 차로 확보에 나섰다.

생태도시를 지향하는 순천시는 친환경 시내버스를 적극 도입, 전국 자

치단체 중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률이 가장 높다. 현재 시내버스 141대 중 85.1%인 120대가 경유보다 가격이 싼 천연가스로 운행되고 있다. 청정연료인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버스는 매연이나 미세먼지가 발생되지 않는다. 질소산화물 등 오염물질도 경유버스에 비해 70% 이상 저감되며, 소음도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광주시 광산구청도 최근 자전거 150여대를 구입해 구청과 가까운 곳에 사는 공직자들에게 나눠주고 자전거 타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에너지 절감에 공직자들의 솔선수범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구청은 환경감과 극락강 주변 등에 20여km의 자전거 도로를 새로 개설할 계획이다.

이와는 별도로 광산구 첨단1동은 에너지 절감과 친환경도시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업소를 대상으로 '자전거 이용 고객 요금 5% 깎아주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이 캠페인에는 이·미용실과 식당 등 30여개 업소가 동참의 뜻을 밝혔다.

전남도도 승용차 대신 자전거를 이용한 출퇴근 캠페인을 벌이기로 하고 임대용 자전거 200대를 구입하기로 하는 등 '에너지절약 10대 강령'을 수립,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정희숙기자 who@kwangju.co.kr

72시간 연속 촛불 집회 '긴장'

전남대 동맹휴업, 조선대도 찬반 투표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촛불 시위가 5일 오후 7시부터 서울광장과 대학로 등에서 72시간 연속으로 열린다. 특히 현충일(6일)과 주말을 맞아 많은 시민들이 집회에 참석할 뒤 거리시위에 나설 것으로 예상돼 이를 막는 경찰과의 충돌도 우려된다.

◇72시간 연속 집회=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5~8일을 '국민집중행동의 날'로 선포했다. 국민대책회의는 이번 철야 집회에 연인원 수십만명이 운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책회의는 이날 오후 7시 서울광장에서 촛불 문화제를 여는 것을 시작으로 '72시간 릴레이 국민행동'에 돌입, 6~7일 오후 4시마다 대학로에서 집회를 열고 서울시청까지 행진해 평화 촛불 문화제를 진행하기로 했다.

광주지역 촛불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시국대책회의'는 서울의 72시간 집회와 별도로 금남로에서 매일 가져왔던 촛불집회를 그대로 진행하고 있

다. 또 전남대가 10일 동맹휴업에 들어간 데 이어, 조선대도 5일 동맹휴업을 놓고 학생 투표를 벌였다.

◇노동계·대학생 기세=민주노총과 한국노총도 이날 각각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에 전면 재협상을 촉구한 뒤 촛불 문화제에 참여키로 했다. 민주노총은 오전 총파업 투표 등 향후 투쟁계획을 발표했고, 한국노총은 조합원이 자율적으로 촛불집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서울대 총학생회가 5일 하루동안 동맹휴업을 벌이는 것을 비롯, 서울지역 주요 대학들도 서울광장의 촛불집회에 합류했다.

◇50대 분신=5일 새벽 2시 40분경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김모(56·일용직 노동자)씨가 페트병에 담긴 인화성 액체를 머리와 몸에 부은 뒤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김씨는 전신의 42%에 2~3도 화상을 입고 치료중이다. 김씨는 한우농장에서 일했으나 최근 실직하자 괴로

워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대응=경찰은 72시간 촛불 집회에 대비해 전경버스로 차벽을 치고 청와대 등 주요시설에 대한 접근을 봉쇄했다. 각종 단체가 신청한 대낮 가두행진성 시위도 모두 금지시켰다. 그러나 시위대 규모가 클 것으로 보고 경비 대책에 고심하고 있다.

/인한주기자 ahj@kwangju.co.kr 연합뉴스

여대생 군항찰 구타 의경 사법처리 키로

경찰청은 촛불 거리시위 집압 과정에서 서울대 여대생의 머리를 군항찰로 짓밟은 혐의로 서울경찰청 특수기동대 소속 김모(21) 상경을 사법처리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경찰은 또 서울특수기동대장 한모 총경과 김 상경의 소속 중대장 김모 경감을 직위해제하고, 서울청 기동대장 신모 경무관과 보안부장 강모 경무관에 대해서는 각각 서면경고 조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나원침 (7525) 김중두



다 좋은 건국 산업자재 KCC
(주) 금복시스템
개인주택, 아파트 발코니
신규사시 **저렴 및 상담 환영**
▶ 서울본사 : 02) 3445-0943
▶ 나주광판 : 061) 337-0571

뒤뚱 걸린 능구렁이 무시하 구조

능구렁이 무시하 구조

○광주의 한 주택 부엌에서 뒤뚱 걸린 능구렁이가 발견돼 신고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에 의해 무시하 구조.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5일 오전 11시에 광주시 북구 장동동에 사는 강모(여·51)씨의 단층 주택 부엌에서 길이 120cm의 능구렁이가 마리가 뒤뚱 걸려 있는 것을 집 주인이 발견, 119구조대에 신고했다는 것.

○이 능구렁이가 뒤뚱 걸어 쉽게 떨어지지 않자 끈끈이에 흙을 뿌린 후 뒷에서 빼내 산 속으로 돌려 보냈는데, 한 119구조대원은 "능구렁이가 쥐나 개구리 등 먹이를 찾아 인근 숲속을 기어 다니던 중 민가로 들어온 것 같다"고 설명.

○최근 광주지역 아파트 단지 등에서 멸종 위기의 황구렁이가 네 차례나 발견돼 화제.

/이종형 기자 golee@kwangju.co.kr

전남 서남해안 해양폐기물 '신음'

어망·통발 방지 늘고 중국 쓰레기까지 '등등'

신안 등 전남 서남해안에서 어망과 통발 등 어업에 관련된 해양폐기물이 늘어나고 있어 처리방안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전남발전연구원 '리전인포' 최근호에 실린 강창민 초빙연구원의 '서남해안 해양폐기물 발생현황 및 대응방안' 발표문에 따르면 신안 입자도 인근 해역의 2005~2007년 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다.

강 연구위원이 목포환경운동연합과 해양수산부 등의 입자도 해양폐기

물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7년 2차례 조사에서 100㎡당 246kg의 해양 폐기물이 수거됐다.

해양 폐기물 대부분이 나무류였으며 양식용 지주목 종류로 어업에 사용됐다. 유실·방치되거나 투기 된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2006년 2차례 조사에서 100㎡당 201kg보다 늘어난 것으로 당시에는 플라스틱과 스티로폼이 전체 조사의 90% 이상을 차지했다.

또 중국 동부해안에서 발생한 것

로 보이는 쓰레기나 중국 어선들이 어업활동 중 투기한 각종 폐기물들도 해류를 따라 표류하다가 해안과 신안,안도는 물론 여수해역에서까지 발견되고 있으며 그 양도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해양폐기물 증가세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해양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에 공동대응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수시로 점검하고 수거하는 한편 폐기물의 적정처리와 재활용방안도 필요한 것으로 강 연구위원은 지적했다.

/채희종기자 chae@



동맹휴업 찬반 투표

조선대학교 학생들이 5일 대학 내에서 미국 쇠고기 수입반대를 위한 오는 10일 동맹휴업을 놓고 찬반 투표를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치매 비관 노부부 동반 자살

치매 등 지병을 앓던 노부부가 신병을 비관해 동반자살했다.

5일 오전 10시45분경 광주시 남구 월산동 모 아파트에서 제조제를 마신 K(82)씨와 부인 C(76)씨가 숨진 채 거실에 쓰러져 있는 것을 며느리 H(51)씨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H씨는 "아침에 함께 병원에 가기로 해 시부모님 집에 왔는데 문이 잠

겨 있어 확인해 보니 거실에서 숨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 조사에서 아들(40)은 "3년 전부터 치매를 앓아 온 아버지를 어머니가 모시고 살았으며, 최근 위장병 증세가 심해진 어머니가 '집이 되겠다'는 말을 자주 했었다"는 진술에 따라 신병을 비관한 것으로 조사 중이다

/강필성기자 kps@

담양군수 아들 사전 영장

이점섭 담양군수의 인사비리 의혹을 수사중인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성운)는 5일 인사청탁용 돈을 받아 아버지에게 전달한 혐의(제3자 뇌물취득)로 이 군수의 아들(36)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군수의 아들은 2006년 6월엔 자신의 큰 아버지(75)로부터 1천만원을 받아 아버지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

노주에게 허락된 일가의 명예, **담양 다이내스티 C.C.**
명예로운 삶에 어울리는 커피를 맛있게 즐기세요. **담양 다이내스티 C.C.**

담양 다이내스티 C.C.는 담양군수 아들(36)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군수의 아들은 2006년 6월엔 자신의 큰 아버지(75)로부터 1천만원을 받아 아버지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담양 다이내스티 C.C.는 담양군수 아들(36)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군수의 아들은 2006년 6월엔 자신의 큰 아버지(75)로부터 1천만원을 받아 아버지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